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입법 세션 종료 전 대리모 합법화와 함께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 사용 금지를 추진하기 위한 캠페인 시작

*대리모 합법화는 동성애자 커플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성애자 커플이 임신 지원을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것*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패닉 방어에 대한 금지 조치는 폭력적인 범죄로 기소당한
사람들이 동성애 혐오 또는 성 전환자에 대한 혐오를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 전략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두 가지 제안 모두 주지사의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의 일환으로 추진

새로운 캠페인 웹사이트는 [이곳](#)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리모 합법화를 비롯해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 사용 금지를 6월 19일 입법 세션 종료 전까지 추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주지사의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입법 세션의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외로 처리됩니다. 캠페인의 새로운 웹사이트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법 내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은 그가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 혹은 성
전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감정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에 대한
혐오를 제도화하고 성문화하는 일이며, 아직까지 법에 이런 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기존 법은 대리모 금지
조항입니다. 현재 47개 주에서 동성애자 커플이나 불임인 이성애자 커플이 자녀를
원한다면, 대리모에게 연락할 수 있지만, 뉴욕에서는 아닙니다. 입법 세션이 종료되기 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에 완전히 위배되며,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의인 이 두 가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과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 법안이 이제 뉴욕주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는 모든 주민을 위한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대리모 합법화와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은 성소수자(LGBTQ)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고 혐오와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층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리모 합법화

대리모는 성소수자(LGBTQ) 커플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성애자 커플이 임신 지원이라는 의료적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뉴욕주 주법은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재생산 기술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지 못합니다. 뉴욕의 재생산 보건법의 포용성을 늘리기 위해, 주지사는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대리모 계약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 금지

현재 게이 및 트랜스 패닉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의 책임을 희생된 성 소수자의 실제 혹은 인지된 성적 취향 혹은 성 정체성 탓으로 돌려, 성 소수자(LGBTQ)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적은 형량을 받고 경우에 따라 유죄 판결을 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이 희생된 성 소수자의 성별, 성 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을 인식 혹은 발견하여 공격한 후 게이 및 트랜스 패닉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현행 뉴욕주 법의 허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시 반폭력 보호(New York City Anti-Violence Project)의 Beverly Tillery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주 전역에서 성소수자(LGBTQ)들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싸움을 선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온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주지사의 싸움을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그는 피해자의 정체성을 근거로 피해자를 비난하여 자신의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성애 혐오 및 성 전환자 혐오를 법정에서 정당방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주 전역에서 뉴욕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라는 끔찍한 법안이 계속 남아있고,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동성애자 커플은 다시 한 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뉴욕주가 계속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미국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그레이터 뉴욕 성소수자 변호사협회(LGBT Bar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의 위원회장이자 전국 성 전환자 변호사협회(National Trans Bar Association)의 공동 위원장인 Kristen Prata Browd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적의에도 불구하고, 이곳 뉴욕에서 우리는 올해 평등을 위한 싸움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욕주에서도 실제 차별을 조장하고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법이 아직 존재합니다. 대리모 금지로 인해 커플이 그들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를 활용할 수 없으며, 꿈을 짓밟고 서로 사랑하며 희망에 찬 커플들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가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가져야만 합니다. 합법적 대리모 제도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바로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 전략이 아직까지 뉴욕의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이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은 오로지 그들의 행위의 본질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장을 맡고 있는 단체인 그레이터 뉴욕 성소수자 변호사협회(LGBT Bar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과 전국 성 전환자 변호사협회(National Trans Bar Association),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커밍아웃한 성 전환자 뉴욕 주민으로서 이러한 법안 통과와 앰파이어 스테이트의 성 소수자(LGBTQ) 권리 증진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열렬한 지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가족 평등 협의체(Family Equality Council)의 행정관인 Stan J. Sloan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전체의 더 큰 평등을 위한 Cuomo 주지사의 싸움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가족을 만드는 일과 사법 정의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불관용 및 차별을 겪어왔던 사람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동성애자 커플이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를 법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우리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뉴욕 전체의 성소수자(LGBTQ)들이 평등을 누리도록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입법 세션이 종료를 향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입법부에 촉구합니다."

Van Degna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매우 많은 수의 커플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은 성소수자(LGBTQ) 및 여성 권리 운동을 언제나 선도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리모가 뉴욕에서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LGBTQ) 커플이 가정을 이루는 데 의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리모와 부모가 이 엄청난 여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 뉴욕주로 쏟아질 사랑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십시오. 이제 뉴욕이 일어서서 대리모를 완전히 합법화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노력에서 Cuomo 주지사가 발휘한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람브다 리걸(Lambda Legal)의 **Richard Burns** 임시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를 없애는 것은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뉴욕의 성소수자(LGBTQ)들이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동성애자 공황' 및 '성 전환자 공황'이라는 정당방위 근거로 행해지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반드시 이번 세션이 종료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뉴욕은 성소수자(LGBTQ) 평등을 선도하는 주로서의 명성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람브다 리걸(Lambda Legal)은 해당 문제에 대한 주지사의 강력한 지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Islan Nettles의 어머니인 **Delores Nettl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2013년 살해당했고, 범인은 성 전환자 공황을 정당방위 근거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는 편견에 가득 찬 가해자가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겨운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이러한 변명이 절대 통해서는 안됩니다. 혐오 범죄로 자녀를 잃은 모든 부모들은 이러한 편향된 법적 허점으로 인해 자녀를 공격한 가해자가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무죄 방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서는 안됩니다. 저는 공황 정당방위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는 뉴욕을 성소수자(LGBTQ)에게 더욱 안전하고 정당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남성 건강 위기(Gay Men's Health Crisis, GMHC)의 **Brian Romero** 정책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자 남성 건강 위기(GMHC)는 부분적으로는 에이즈(HIV/AIDS)에 감염된 사람들과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Andrew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가혹한 대리모법과 이른바 동성애자 및 성 전환자 공황 정당방위를 폐지하려는 노력에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모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면, 동성애자 커플 및 불임으로 고통받는 커플들은 우리 뉴욕주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법이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LGBTQ)인 뉴욕 주민을, 특히 유색 인종인 성 전환자를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는 스톤월(Stonewall) 반란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함께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아니면 올버니를 떠날 수 없게 만들어서) 촉구해야 합니다."

Barbara Joy Beat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랫동안 침묵당해왔던 사람들과 차별당했던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지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주지사와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노력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불평등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모든 뉴욕 주민이 더욱 큰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행정부 기간을 통틀어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평등 결혼법(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교육 기관, 임대주, 채권자, 기타 주민이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하여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 정체성에 기반한 범죄나 증오를 표현하는 범죄는 뉴욕주 법에 따라 금지되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18 세 미만의 환자에 대한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법(education law)에 따라 전문가 면허를 받는 직업에 대한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요한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조항의 잠재적인 퇴행을 예상하여, Cuomo 주지사는 보건부가 건강보험 제공기관이 트랜스젠더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트랜스젠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확대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들은 저비용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명시된 성 정체성에 기반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폐지하라는 Trump 행정부의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항을 삭제할 경우, 약 90,300 명의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이 불공정하고 노골적이며 불법적인 차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연방 정부 보호 조항에 대한 연방 정부의 퇴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주지사는 뉴욕주 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이 당할 수 있는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지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